

‘(가칭)건축단체협의체’ 첫 회의

업계 실무현안·이슈 건축사 의견모아 한목소리 낸다

오는 8월 3일 의무가입 건축사법 경과조치 종료를 앞두고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가 상호 소통·화합·협력관계를 견고하게 이어나가기 위한 ‘(가칭)건축단체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건축사업계 직능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산적인 실무현안을 해결하고, 업계 단기·중장기 사항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기 위함이다.

건축사업계 정책,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건축단체협의체’가 3월 2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첫 ‘킵 오프(Kick-off)’ 미팅을 가졌다. 건축단체협의체는 건축사업계 발전을 위한 단체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다양한 혁신제안을 하는 리딩그룹 역할을 맡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박성준 부회장·정창호 이사, 한국건축가협회는 한영근 부회장·임진우 부회장, 새건축사협의회는 박현진 부회장·이승환 정책위원이 참석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무가입을 계기로 건축계 전체를 바라보고 상생하며, 현안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함께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 모임을 통해 앞으로 민간설계대가 법제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서로 간 힘을 모아 대응하고, 제도개선을 주도해 나가기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설계대가 법제화를 비롯해 △의무가입 운영 △건축 설계공모 부조리·관행 △BF 관련 인증 기관 무리한 요구 등의 문제 △과도한 ‘방화창’ 규정 △공공건축에서의 설계비 증액 문제 △건축사 자격시험 △외국건축사 제도 등 중장기 과제서부터 건축사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의견들을 개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 참석자 모두 “의무가입을 기초로 서로 간 상생, 소통, 화합하는 가운데, 각종 현안 및 이슈에 대해 보다 단합된 한목소리로 공동대응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며, 매월 첫째 주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인기 상영작 다시보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인기 상영작을 다시 볼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건축영화의 재관람을 희망하는 관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인기 상영작 다시보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시보기는 담당 프로그래머가 직접 엄선한 총 26편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안도 다다오, 알바루 시자 등 다양한 아키텍트의 비하인드를 담은 영화의 다시보기를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행사팀(kirasiaff@gmail.com, 02-3416-6907, 69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영화라는 대중적 매체를 통해 건축을 표현하는 문화예술 행사로, 종합예술이라는 장르로 하나되는 건축과 영화의 문화적 만남을 통해 건축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2009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유일의 비경쟁 건축영화제다.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의무가입 기초로 상생·소통·화합해
 ‘현안 공동대응 및 적극 대처’ 뜻 함께해
 매월 주제 정해 회의 정례화하기로



권영걸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신임위원장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신임위원장과 민간위원 위촉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신임위원장과 위원이 새롭게 위촉됐다. 임기는 2025년 3월 26일까지 2년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제7기 신임 위원장에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08년 출범 이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와 조정역할을 해오고 있다.

신임 권영걸 위원장은 “국민의 삶을 담은 새로운 미래공간을 위한 건축·도시환경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공간을 국민과 소통하며, 해당 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직 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위원장	권영걸	▶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위 원	김개천	▶ 국민대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가나다순)	김규린	▶ 좋은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세훈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소라	▶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김종헌	▶ 배재대 건축학과 교수
	김현선	▶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신	▶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손진락	▶ 화성건축사사무소 대표
	안용한	▶ 한양대 ERICA 건축학부 교수
	유이화	▶ 이타미준건축문화재단 이사장
	이인화	▶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정진국	▶ 한양대 건축학부 명예교수
	조경진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조세환	▶ 한양대 도시대학원 명예교수
	조승구	▶ 동명대 건축학과 교수
	한광야	▶ 동국대 건축공학부 교수